

## ‘팬데믹 이전 지상조업 인력의 60%만 회복’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

< 보도 내용 (조선일보, 9.25) >

◆ 항공업계 “급유·견인·운항관리사가 없어요”

- 지상조업 인력은 팬데믹 이전의 60%만 회복되는데 그쳐 항공기 좌석공급(82%) 회복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

□ ‘지상조업 인력은 팬데믹 이전 인력의 60%만 회복되는데 그쳐 항공기 좌석공급(82%) 회복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’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항공분야 인력은 코로나-19 이전 대비 지상조업 91%를 포함하여 약 96% 충원되었으며, 국제선 회복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.

\* (23.8월 회복) 조종 101%, 정비사 94.3%, 승무원 95.3%, 지상조업 91.5%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제선 조기회복 추진과 함께 이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해 '22년 8월부터 인력관리 T/F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인력충원 현황을 점검하고,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,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의 인력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□ 특히, 지상조업 분야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력 충원율이 낮아 올초 항공기 운항 차질이 우려되었으나,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상시 채용, 출퇴근 교통지원 등 별도의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필요한 조업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이달 초 허용된 지상조업 상하역 분야 외국인 고용은 지상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업체의 외국인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 TF를 구성하여 행정절차 컨설팅, 공동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4307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극 (044-201-4225)
			주무관	김홍석 (044-201-4194)

